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

1월부터 즉시 부과되면서 전년보다 129건 증가
렌터카 위반 중앙차로 406%·가로변은 208% ↑

올해 1월부터 제주 시내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되면서 렌터카량의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건수는 총 6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49건에 비해 129건 증가한 수치다. 중앙차로인 경우 지난해 63건에서 152건으로, 가로변차로는 지난해 486건에서 526

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차량별로는 중앙차로인 경우 일반 차량 위반이 지난해 46건에서 올해 83건으로 180% 증가한 반면 가로변차로는 424건에서 397건으로 27건이 줄었다. 일반차량의 경우 가로변차로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렌터카다. 렌터카인 경우 중앙차로 위반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69건으로 406%(52건) 급

증했다. 가로변차로인 경우에도 지난해 62건에서 129건(208%)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렌터카의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제도 시행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 구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자칫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여행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과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차량관리과 현철

우 팀장은 “공항과 항만 등지에서 입도객은 물론 렌터카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해 지속적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로인 경우 광양사거리~아라초(2.7km) 구간과 공항구간(공항~해태동산) 2곳이, 가로변차로는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11.8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반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이뤄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중앙차로 공항구간은 지하차도 공사로 오는 4월말까지 단속을 보류중이다. 이윤형기자

“제주 여성 노동 보상, 남성보다 낮아” 여가원 ‘근현대 제주여성노동사 정립 연구’ 보고서

제주 여성들의 노동 참여가 산업화 시기 제주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여성의 지위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5일 ‘근현대 제주여성노동사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연구책임자 강경숙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해방 이전 근대 제주 여성의 노동 양상(1887~1944년), 해방 이후 과도기 제주 여성의 노동(1945~1960년), 지역개발 시기 제주 여성 노동의 변화(1961~2000년) 등으로 120여년의 근현대 시기 제주 사회와 여성 노동에 대해 다뤘다.

연구진은 “제주 여성의 노동 참여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여성의 지위를 높이지는 못했다”며 “전 산업화 시기 제주 여성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노동에 대한 보상은 남성보다 낮았다”는 연

구 결과를 내놨다.

지역 개발 시기인 산업화 시기(1961~2000년) 전국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한 것과 달리, 제주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오히려 감소했고 1990년대에는 전국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또 제주 여성들은 ‘1차 산업의 남성 노동력 확대’, ‘3차 산업(관광서비스업)의 여성화’와 같은 남성 중심적 개발정책으로 인해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임시 및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였다고 파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성평등정책 기획과 제도 마련 시 활용할 것과 제주 문화·관광·교육·미디어 등 콘텐츠 기획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방역·안전사고 예방 중점

서귀포시, 29일~2월 2일

서귀포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한 빈틈없는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방역·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비상진료·감염병 예방 의료대응 체계 구축, 물가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생활쓰레기·교통 등 시민 불편 해소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에 시는 설 연휴에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28개 부서의 725명을 투입해 종합상황실(064-760-2231)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각종 재난·재해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오전 9시~오후 6시)해 빈틈 없는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설 연휴 2주 전부터 농·수·축산물 가격 담합, 원산지 및 가격 표시 등 집중 점검한다. 백금탁기자



팽생이 모자반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들 25일 제주시 한경면 응수리에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예년에 비해 일찍 출현해 파도에 밀려온 팽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불법광고물 급감

서귀포시 지난해 77만건 정비… 전년比 1/3 수준

서귀포시지역의 불법광고물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위축으로 경제 주체들의 불법광고 자체가 줄었고, 행정의 단속도 예년에 비해 다소 느슨해진데 기인한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77만2294건으로 2020년 234만4447건에 견줘 157만2153건(67.1%)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245만

7574건을 단속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정비실적은 평년의 1/3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불법광고물은 대부분 현수막·임간판(에어라이트 포함)·전단·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고정광고물 단속건은 지난해 35건으로 2020년 13건에 비해 늘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

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한 실적도 지난해 70만5323건(1203만원)에 불과하다. 2020년 183만259건(3969만원), 2019년 222만2636건(3047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행정차원에서의 홍보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는 올해 예산 3000만원을 들여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참여자격은 현수막 부분(20~60세)과 벽보·전단 부분(60세 이상)으로 나뉜다. 보상단가는 현수막 족자형 2000원, 일자형 3000원이다. 벽보는 30원, 전단은 10원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효과’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일평균 반입 15.5% 증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되면서 일평균 반입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차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제도는 2020년 12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먼저 시행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됐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은 단독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이달 들어 제주도 지역 일평균 반입량은 종전 415kg에서 479kg으로 15.5%(64kg) 증가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24일까지 시 관내 클린하우스에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연두색) 1532개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클린하우스 용기 넘침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배출함(스티

커 부착)과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연두색)을 비치 운영했으나, 시민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전용수거함(연두색)을 모든 클린하우스에 비치했다.

투명페트병 배출은 월·수·금·일요일로 기존 플라스틱 배출요일과 동일하며 재활용도움센터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다.

시는 또 매주 일요일은 재활용데 이로 재활용도움센터로 투명페트병 1kg를 가져가면 종량제봉투 10L 2매로 교환해주는 자원회수 통합보상제도 운영중에 있다.

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이나 혼합 배출하면 일반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의무시행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리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치),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병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오하라베니
자원종묘 착과모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